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T: 715-9185, F: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E-mail: rights@interpia.net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nterpia.net/~rights/>

<단상>

이 땅에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은

박 래 군(사무국장)

이 란의 순서를 맡아야 할 운영위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사코 다음 번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글이나마 써보기로 했다. 무엇을 쓸까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위와 같은 글 제목을 적어 보았지만, 이것은 적잖이 개인적인 녀두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나의 인권운동에 대한 자각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 16년째 운동밥을 먹는 동안 몇 개 월 다른 직업을 가진 외에 난 운동을 떠나보지 않고, 미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인권운동이 내 '갈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고작 3년 정도 밖에 안된다. 3년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참가 이후 인권 영역의 광대함과 그 할 일 많음에 한참 고무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이후 유가협 5년 세월을 정리했고,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모임의 일을 보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귀퉁이를 월세 5만원씩을 주며 사용했고, 한참 어수선했던 2년전 8월 정식으로 사랑방 식구가 되었다.

자료실장으로,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으로 능력 없는 놈이 어려운 일에 부대끼다 올해 3월부터는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전에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 나의 본격적인 고민은 보다 본질적인 인권, 인권운동에 관한 것들로 꼭 차 버렸다. 고민의 핵심은 변화되었다는 21세기를 앞둔 이 상황에서 철학과 전략없이 그때그때의 닥치는 일들에 매몰되는 '못난 인권운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인지에 대한 것이 중심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 외국 어에는 문의한인 나로써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다. 인권운동의 지평은 갈수록 넓어만 가고,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실천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80년대적인 인권운동의 영역에서 모든 기(氣)를 다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에 매달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보다도 조금은 구차한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현실 생활이 매우 피곤한 상황이면 나도 언제 지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인다는 것이다. 친구들이나 외부 사람들 만나면 술값 한번 내지 못하고 빈 주머니를 원망하면서 저 술값이면 내 한달 용돈으로 충분한데 하는 껄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이가 들이나 딸린 가장으로 마누라의 푸념은 어차피 그럴 줄 모르고 결혼 했냐는 한 마디로 누를 수 있어도 크게 죄책감이 들지 않는데, 큰 딸이 뭐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아빠 돈 벌면 사 줄게" 라는 뻔한 변명으로 일관할 때는 속이 쓰리다.

물론 나는 이런 문제들에는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고, 비교적 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살고 있다. 아마 이런 생활 속의 긴장마저 없이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저런 것 신경쓰지 않고 신명나게 인권운동에 진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꿈꾸어 보는 것이다.

사업보고

(6월 셋째주~7월 둘째주)

□ 인권영화제 추진 경과 □

한겨레신문사가 인권영화제 제안에 대해 지난 3일 최종 결정을 내려 <씨네 21>과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주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측은 공동주최에 따라 <씨네 21>에 영화제에 대한 기획연재와 광고, 한겨레신문에 기획기사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씨네 21> 독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겨레신문사와 7월 3째주부터 협의를 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6월13일부터 2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Human Rights Watch 주최의 제7회 인권영화제에 참가, 관련 단체들 또는 전문가들을 만나 영화 상영권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사영 가능 작품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인권영화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검열 조항에서 영화제의 경우 3년 이상 영화제 개최 경력이 있거나 작품출품국이 3개국 이상일 때에 한해 검열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화제는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검열비는 10분에 4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검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인권영화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시민운동지원기금 4백만원 받아 □

시민운동지원기금으로부터 인권영화제 사업지원비 4백만원을 지난 6월말 수령했습니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이번 기금은 총 지원금 5백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백만원은 사업이 종료된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씨 불법감금 □

지난 12일(금)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씨가 취재차 삼성본관 앞에서 있는 민주노총의 삼성그룹 무노조정책에 항의하는 행사에 나갔다가 불법연행되어 29시간여 동안 감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경씨는 계속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취재중이었음을 밝혔으나,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에서 북부경찰서로 옮겨 마지막 순간까지 김편집장을 시위 참가자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토요일 12시경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곧바로 불법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동티모르 모임에 참가하기로 □

지난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인권협 초청으로 방한한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자신토씨의 방한을 계기로 동티모르 관련 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4일 간담회에 20여명의 인권운동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후 동티모르 관련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모임의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를 준비할 6인 운영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단체 중심으로 구성하지 말고, 관심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 7월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판결 패키지가 발간됩니다.

인권하루소식

oland/hnews 약부호로 접속 가능

7월 12일부터 컴퓨터 통신 01410에 올라가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접속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01410망 초기화면에서 약부호 oland/hnews 만 입력하면 곧 바로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up load)도 가능해짐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하루소식 및 자료를 올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회원통신 개편 8월로 연기 죄송 □
 회원통신을 이번 호부터 개편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번번히 유회되어 이 안전이 운영위의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8월부터는 보다 혁신된 모습의 회원통신으로 만나 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정 □

- 서준식 대표가 미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11일 오후10시경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서대표는 영화제에 상영할 영화 프로그램 약 30편 정도를 구해 왔습니다. 한편, 서대표의 가족들은 큰 딸 보슬이의 치료를 위해 11월말까지 계속 미국 시애틀에 남아 있게 됩니다.
- 윤기원 운영위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3476-1114, 팩스는 3476-3414이며,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201호입니다.
- 임종인 운영위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금

호동에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전화는 296-8202, 팩스는 296-8205이며, 주소는 성동구 금호4가 548-1번지 2층입니다.

<광고>

□ <인권하루소식> 독자 확대!

주위 분들에게 <인권하루소식> 구독을 권유해주십시오. 날로 독자가 줄어들고 있어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 영문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인터넷에 영문소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1주에 A4 용지 1매 정도 번역해주실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기사 제보

☎ 715-9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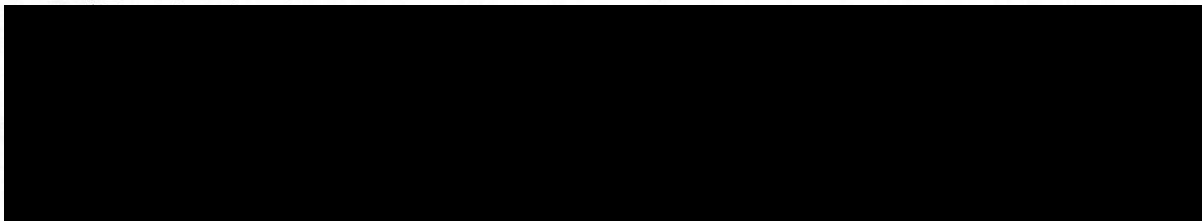
96-06분기 재정보고('96 06/16-07/15)

전기이월 -1,239,332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2,796,800	활동비	3,490,000
하루소식 구독료	1,810,600	사업비	90,000
사업수익	4,064,800	발송비	300,450
은행이자	4,461	사무비품	112,600
기타수익	55,000	사무실유지(집세포함)	574,658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438,670
		전화요금	842,965
		차입금 상환	1,600,000
		사무기기	378,400
계	8,731,661원	계	7,827,743원

최종결산: -335,414

<96년 6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소식

앞으로 세계주거회의의 관련 자료를 연재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Report for Habitat 2 /건설교통부,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95.12/ 54쪽/ EN

: 제2차 세계주거회의에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로 한국정부의 주거정책, 개발전략, 토지, 신도시, 인구분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래의 주거정책을 위한 국가 행동을 밝히고 있다.

◆ NGO Working Group Composite Draft Suggestions for the Habitat 2 Agenda/ Felix Dodds 1996.4/ 89쪽/ EN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권(sustainable human settlements)을 창조,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민간단체 실무그룹이 제시하는 Habitat 2 의제(Agenda)들을 모은 자료이다.

◆ SUMMARY REPORT ON DIALOGUE : "HOUSING RIGHTS AND EVICTION: EAST-SOUTHEAST ASIAN CAUCUS"/ 박문수/ 1996/ 12쪽 /EM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일본,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강제철거의 특징과 구조적인 원인, 지역수준에서의 제안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VE MEETING ON PARTICIPATORY RESEARCH IN URBAN / M.W.Amarasiri de Silva, K.A.Jayaratne/ 95.4/ 78쪽/ EM

: 아시아에서 도시빈민 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참여, 개발, 조사, 공동체 지도자 훈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Survival in the Cities: Urban Poverty and Urban Development/ UN/ 4쪽/ EN

: 도시빈곤과 개발, 구조조정을 다룬 팸플릿이다.

◆ Population and urbanization/ UN/ 4쪽/ EN

: 인구와 도시화, 교육, 보건 문제를 다룬 팸플릿이다.

◆ Is there a right to housing?/ UN/ 5쪽/ EN

: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아동권리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등에 나타난 주거권(RIGHTS TP HOUSING)과 이를 국내, 국제수준에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 Women homes and communities/ UN/ 10쪽/ EN

: 주거권에 있어 여성이 자신의 권리에서 소외된 현실과 특히, 여성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소유권과 권력,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접근, 참여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Partnerships for the urban environment/ UN/ 4쪽 / EN

: 인간정주와 지속가능한 개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체간의 파트너쉽을 다룬 자료로 이집트와 파키스탄의 좋은 사례를 들고 있다.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reveals : 500 million homeless or poorly housed in cities worldwide / UN/ 6쪽/ EN

: 도시화에 따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홈리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전세계 주거지표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도 제시되어 있다.

◆ 한국도시문제와 해결방향 토론회 - 세계주거회의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 / 제2차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1996.7/ 12쪽/ KO

: 제2차 세계주거회의의 결산과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제2차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 세계주거회의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박재천) 등